

2021년 사순 시기 묵상집

돌아섬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PONTIFICAL MISSION SOCIETIES IN KOREA

여는 글

파스카 신비의 은총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입었습니다. 참으로 하느님 자비의 체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쳐”(갈라 2,20)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관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분과의 대화는 벗끼리 나누는 허심탄회한 대화입니다. 그러하기에 사순 시기에 바치는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느님 보시기에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 속을 꿰뚫고 무디어진 우리 마음을 다듬어 주어 우리가 더더욱 하느님께 그리고 하느님 뜻으로 돌아서게 해 주는 기도입니다.

이 은혜로운 시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듯이 (호세 2,16 참조)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자신을 내어 맡깁시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는 우리 신랑이신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분 목소리가 우리 안에 더욱 깊이, 더욱 기꺼이 되올려 퍼지게 할 수 있습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

돌아섬

2021년 사순 시기 묵상집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PONTIFICAL MISSION SOCIETIES IN KOREA

짜임

03	묵상 시 1
04	복음 묵상
43	묵상 시 2
44	전례 안내
46	복음 묵상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는
후원과 기도로 선교에 동참해 주시는 회원님들을 위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사순 시기 묵상집 『돌아섬』을 엮었습니다.
『돌아섬』과 함께 은총의 사순 시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길라잡이’는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지부장
김준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께서 집필해 주셨습니다.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 성 안셀모

주님,
당신을 알고 사랑하며
즐기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충만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
날마다 조금씩 나아가
언젠가 충만함에 이르게 하소서.

당신을 알아가는 길에서
진보하게 하시고
당신을 향한 사랑이
자라게 하시어
그곳에 다다를 때면
완성에 이르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는
희망의 기쁨을,
그곳에서는 진정한
충만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2월

말씀 길라잡이

17일

재의 수요일인 오늘 우리는 머리에 재를 얹으며,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창세 3,19 참조)라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명을 주셨기에(창세 2,7 참조) 인간의 생명은 오로지 하느님께 달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기에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언제가 하느님께로 되돌아가려면 하느님께서 처음 빚어 주셨던 그 원 상태에 가까워야만 합니다. 그 원 상태는 한마디로 순수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던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순수하였습니까? 하느님께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순수함을 잃으면 힘마저 잃게 됩니다. 남의 눈치만 보게 되고, 뒤에 숨게 되며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모습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중대한 일을 결단해야 할 때 순수함 하나로 극복했던 경우도 많습니다. 순수할 때만이 주님께서 내 안에 머무시며 힘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이번 사순 시기를 보내면서 초심을 잃지 말고 더욱 순수해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를 살아 계신 하느님의 성전, 지극히 복되신 성삼위의 거처로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세례는 우리에게 중대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마귀를 끊어 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신앙으로 성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순 시기는 세례 때에 우리가 한 약속을 새롭게 하는 시기입니다.

다니엘 로워리,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실천 한 가지

하느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금육과 단식을 기쁘게 지킵시다.

회심은 새로운 각오로 하느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신뢰와 같다. / 로제 수사

2월 18일 말씀 길라잡이

우리 앞에는 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데, 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지 의아할 때마저 있지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어려움을 없애지 않으시고, 왜 우리에게 끝도 없이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지….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쇠가 불 속에서 단련을 받아야 더 단단해지듯이, 시련과 고통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되며, 신앙이 더욱 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대속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인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우리는 늘 십자가를 피하려고만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십자가는 유달리 커 보이는데, 다른 이들의 십자가는 작아 보이기에 서운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각자 고유한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내가 희생하더라도 나만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지, 오늘 묵상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고통이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손에 자신을 맡겨 드리는 사랑의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그리하여 고통은 신앙과 사랑이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십자가 위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성부와 일치하셨던 그리스도를 관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시선에 동참하는 법을 배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신앙의 빛, 56항』

실천 한 가지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집시다.

고통은 우리를 다시 아버지께 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 토니 던지

2월 19일

말씀 길라잡이

오늘 제1독서의 주제는 참된 단식의 자세입니다. 눈에 보이는 단식,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단식보다 실천적인 단식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의한 사회 구조를 정화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굶주린 이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그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것이지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복음도 같은 맥락입니다. 단식할 때도 있지만, 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예수님 말씀은 단식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단식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희생과 수난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절약한 것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헌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평소 즐기는 것을 절제하고, 그 시간에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바람직한 단식의 실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절약한 시간과 비용을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눈다면 주님의 희생에 동참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순 시기에는 이기심, 과시욕, 방종, 질투와 경쟁의식을 비롯한 여러 욕망을 절제하고 나를 비움으로써 또 다른 세계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단식과 기도와 자선만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소리 없는 단식과 기도와 자선만이 참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 앞에서 진실로 단식하고 기도하며 자선을 행하는 신앙을 살도록 그분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유경춘, 『사순, 날마다 새로워지는 선물』

실천 한 가지

단식하여 절약한 한 끼 식사비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헌합니다.

단식은 마음의 절제와 영혼의 덕행을 쌓고자 고행을 하는 모든 이에게 유용한 수단이다. / 요한 카시아누스

2월 20일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세리를 부르시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어부 출신인 다른 제자들과 달리 레위는 이제 다시는 세리라는 직업으로 돌아갈 수 없기에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기도의 응답이 없다며 세례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레위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안정된 직업은 잃었지만, 대신 삶의 의미를 찾았지요. 이런 모습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나 자신은 아무 죄가 없다.’라는 자만심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영적으로 문제없다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요소가 자신도 모르게 스며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늘 남의 탓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잘못된 것마저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반복해서 범하는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캐내어야만 합니다.

신앙이란 온갖 자존심과 허세와 위선의 욕망을 과감히 벗어던지는 일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는 한 치의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는 위선과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송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실천 한 가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분의 따스한 자비를 신뢰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람으로 바뀌는 경험, 그것이 핵심이다. / 버나드 로너건

2월

말씀 길라잡이

21일

오늘 복음을 보면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광야는 풀조차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척박한 땅입니다. 자신의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 땅입니다. 그렇지만 광야는 박해받거나 쫓기는 이들에게 피신처가 됩니다. 하느님을 만나려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광야는 세상의 시끄러움에서 벗어난 곳입니다. 세상의 편함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어느 깊은 산 속에서 홀로 자신을 성찰한다면 그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느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지요.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광야에서 수련하시던 중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십니다. 아마도 사탄은 배고픔과 외로움에 시달리신 예수님에게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자신의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유혹했을 것입니다(마태 4,1-3 참조). 우리는 능력이나 시간이 있어야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은 나의 배고픔부터 해결하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 이웃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 시기 동안 광야를 체험하며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인생이 광야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다. 텅빈 것에서 손을 놓을 수 있다. ... 마음의 고통이 극에 달할 때야 비로소 생의 우선순위를 깨닫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광야는 우리 영혼에게 귀한 것이요, 해방을 위한 '초대'이다. 야곱의 후손들이 하느님을 우선순위로 택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광야로 초대됐듯이 우리도 허망한 것들은 다 떼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라고 광야에 초대되었다.

송봉모, 『광야에 선 인간』

실천 한 가지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나쁜 습관을 하나 끊어 버립니다.

우리가 이 작은 땅덩이에 태어난 것은 하느님이 내리는 눈부신 사랑의 빛을 건디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다. / 윌리엄 블레이크

2월 22일

말씀 길라잡이

오늘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을 맞아 교회에 대해 함께 생각해볼 것입니다. 교회란 하느님을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지요. 부족한 인간들의 모임이기에 하느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서 열두 사도 중에서 시몬 베드로를 으뜸으로 삼으시어 교회를 이끄는데 특별한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교황님은 이러한 권한을 받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하느님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사명을 지니고 계신 것입니다. 주교님들은 열두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교황님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십니다.

물론 교회의 교계 제도는 마치 일종의 계급 사회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사랑과 봉사, 자유를 바탕으로 한 권위 밑에서 형제적 사귄과 친교를 이루어나가야 하지요. 교회는 이미 완성된 하나의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비체로서 끊임없이 성장해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언젠가는 완성될 하느님 나라를 향해 계속 순례의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아 보이지만, 제자들의 삶, 그들의 인격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특별히 공동체가 선포하는 말씀과 거행하는 성사를 통해 ‘지금 여기’ 함께 머물러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길, 손짓, 말씀, 행동 … 그분이 제자들과 걸으신 여정 모두가 교회의 믿음을 통해 나와 우리를 위한 것이 됩니다.

한민택, 『내 삶에 열린 하늘』

실천 한 가지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하느님을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라. / 성 아우구스티노

2월 23일

말씀 길라잡이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주십니다.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다고 불리는 주님의 기도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요. 먼저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며,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어 영적, 물적으로 필요한 것을 청하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느님을 찬미하는 일이 첫 번째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청할 때도 자신의 이익보다는 인류의 공동선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합당하고 보편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하느님께 용서받으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도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용서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내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나 합리화하지만, 남의 잘못은 두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낸 적도 많습니다. 만일 남을 용서할 마음 없이, 건성으로 주님의 기도만 바치며 하느님 나라가 오기를 청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용서를 믿으라고 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스스로도 형제자매를 용서하라고 요구한다. ... 그분의 무한한 용서에 대한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용서하게 한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용서가 그분의 용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깊어지게도 한다.

안셀름 그륀, 『주님의 기도』

실천 한 가지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의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의 기도를 바칩시다.

참된 기도는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게 합니다. / 케이트 맥클레란

2월 24일

말씀 길라잡이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표징을 요구하는 세대를 탓하며,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따로 보여 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니네베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느님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다 폭풍이 일자 바다에 던져지지요(요나 1장 참조). 이어 물고기 배에 들어간 요나는 사흘 만에 변화되어 나옵니다(요나 2장 참조). 그 후 제1독서에서처럼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네베 사람들은 모두 회개하며 하느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 요나보다도 더 큰 표징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눈앞의 기적이나 표징만을 찾느라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죽음과도 같은 물고기 배 속에 머물며 회개하였습니다. 하느님을 외면하고 다른 곳을 향하던 요나가 물고기 배 속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참된 기도를 했고, 마침내 변화된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기도하기 전에 너무나도 많은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하려면 자신과 싸워야만 합니다. 물고기 배 속과 같은 절박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명백히 부당한 세상의 고통 앞에서 하느님께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 울부짖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우리의 고통에 신앙의 대답을 줍니다. “그대가 이해할 수 있다면, 하느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울부짖음은, 십자가 위의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절대적 권능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가장 깊고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베네딕도 16세 교황,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38항』

실천 한 가지

TV를 잠시 끄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느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 그레이엄

2월 25일 말씀 길라잡이

예수님 당대 유다교에서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을 너도 남에게 하지 마라.’라는 계명이 널리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이 계명을 더 적극적인 형태로 이끄십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기존 계명은 ‘악을 소극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요. 반면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은 ‘악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의 계명, 황금률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남에게 용서받고 싶은 만큼 용서해 주고, 칭찬을 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칭찬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기 전에 먼저 도와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오해를 겪겠습니까? 사랑을 실천할 힘과 방법을 주시도록 주님께 정성을 다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악을 없애는 것은 그에 맞서는 악이 아니라 사랑으로 참는 선입니다. 선한 사랑만이 악을 녹일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으면서도 참아내는 바보들, 상처를 입고서도 기꺼이 용서해주는 바보들, 이런 바보들이 이 세상을 밝히며 저세상을 향한 에너지를 비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바보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바보가 아니셨습니까?

송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실천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잘 이해하지 못했던 이웃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사랑에는 법이 없다. 사랑이 법보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 보에티우스

2월 26일

말씀 길라잡이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형제에게 화를 내고 형제를 모독하는 일까지 금지하십니다. 분노와 모욕이 모든 분쟁의 발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마음 안에 갇든 모든 악한 요소들을 뿌리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문제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을 용서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미움과 같은 가시를 빼내고 진정 내 안에 평화가 넘치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도 아픔으로 남아있어 스스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아픔을 느낄수록 용서로부터 멀어진다고 생각하지요. 물론 용서한다고 해서 아픔이 단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픔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아픔은 더 커질 것이 아닙니까?

나아가, 불의한 자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오히려 그들을 위해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온갖 상처투성이인 인간관계, 병든 사회 구조를 치유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용색함’이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웃을 향한 배려에 인식하여 관대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랑과 용서에서 비롯되는 관대함, 온정이 있는 판단과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를 ‘아주 높은 이의 자녀’가 되게 한다.

자크 필립, 『내면의 자유』

실천 한 가지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을 바칩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어딘가에 있을 행복으로 향해 간다. / 티모시 래드클리프

2월 27일

말씀 길라잡이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악인마저도 구원되기를 바라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로운 이나 불의한 이나 모두 당신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내가 부족한 존재임을 깨우쳐야 합니다. 결점이 많은 나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해주지 않겠습니까? 나 역시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이는 대가를 바라는 행위가 아닙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은 원수나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힘입어 그들의 마음속에 박혀있는 악의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서서히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저마다 이익만 추구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사랑의 증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랑을 넓혀 나갈 때, 오늘날 확산하고 있는 죽음과 파괴의 문화는 점차 사랑과 생명의 문화로 변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어느 날 죽음이 가까운 암환자가 실려 왔다. 그에게서 나는 악취가 너무도 지독해서, 그를 담당하던 남자 봉사자가 구역질을 하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마더 데레사가 그 환자를 맡게 되었다. 낯선 여인이 자신을 보살피는 것을 보며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은 이 냄새를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마더 데레사가 온화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M. K. 폴, 『마더 데레사의 말씀과 일화』

실천 한 가지

현관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신발을 사랑의 마음으로 정리합니다.

자기희생을 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인류 사회는 개선될 수 있습니다. / 톨스토이

2월

말씀 길라잡이

28일

오늘 제1독서를 보면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사악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엄청난 고뇌 끝에 아브라함이 실행에 옮기려 하자, 천사가 만류하며 복을 내릴 것을 약속합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더욱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독려하고자 끊임 없이 시련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런 시련을 하나하나 극복해나감으로써 주님과 점점 일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산은 하느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어 예수님의 모습이 눈부시게 빛나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과거 산에서 하느님을 만났던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서 죽음을 극복하고 장차 부활하신다는 표징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라도 하느님에 대한 의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우리를 하느님께서 끝까지 살려주실 것이 아닙니까? 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련을 겪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신뢰입니다. 하느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바로 내가 당한 상처입니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그 상처와 고통의 속박에서 헤어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민택, 『하느님과 숨바꼭질』

실천 한 가지

내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느님을 붙잡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느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아는 것이다. / 존스

3월 1일

말씀 길라잡이

오늘 제1독서에서는 다니엘이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먼저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정의로우심을 찬미합니다. 이어 자신의 부족함과 지은 죄를 회개하지요. 특히 다니엘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자세가 기도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점점 무자비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칠고 폭력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 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나의 상처부터 치유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 박힌 가시를 먼저 뽑아내야 하지요. 내가 입은 상처가 가시가 되어 다른 이를 찌를 때도 있습니다. 내 안의 가시로 말미암아 다른 이에게 악한 기운을 발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선한 기운을 상대방에게 보내면 상대방도 나에게 따스한 기운을 보내줄 것이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일을 항상 ‘내가 옳거나 아니면 네가 옳거나’라는 ‘or’의 전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다를 뿐, 나도 옳고 또한 너도 옳다’는 ‘and’의 게임으로 받아들이는 지혜와 여유를 가진다면 우리 삶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질 것이 분명하다. 어찌면 사랑은 서로 닮아가면서 서로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인정해가는 두 개의 자비로운 마음이 아닌가 싶다.

최강, 『나는 넘버 쓰리가 두렵다』

실천 한 가지

함께하는 동료나 가족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합니다.

자비는 교회 생활의 토대입니다. 자비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3월

말씀 길라잡이

2일

오늘 제1독서에서는 실천적인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정을 추구하고 억압받는 이들, 힘없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지요.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막상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강력하게 비판하십니다. 율법의 근본정신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바탕 위에서 주님을 흠숭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사람의 생명, 재산, 인격, 명예 등을 지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율법의 목적은 인간을 부당한 억압과 명예로부터 해방하며 더욱 인간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명예를 만든 것입니다. 아예 지키지도 못할 많은 규율과 범례를 만들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게 한 것이지요.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려면 하느님 계명의 껍질보다도 그 속뜻을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주변의 사람 하나하나를 다 예수님 대하듯 귀하게 대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안식일 저녁만 되면 숲에 가는 랍비가 있었다. 그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숲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어느 안식일 저녁에 신도들은 한 사람을 시켜 랍비의 뒤를 밟게 했다. 숲속 깊이 들어간 랍비는 작은 오두막에서 멈췄다. 그곳에는 유대인이 아닌 한 노파가 살고 있었는데, 불구의 몸인 그녀는 죽을 것같이 고통스러워하며 누워 있었다. 랍비는 그곳에서 노파를 위해 장작을 나르고 청소를 했다.

조앤 치티스터,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실천 한 가지

소원했던 가족과 친구에게 전화로 먼저 안부 인사를 전하고, 그를 위해 주모경을 바칩시다.

사랑은 인간의 영혼을 더욱 위대한 것으로 만든다. / 프리드리히 실러

3월 3일

말씀 길라잡이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에 끝까지 충실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돌아온 것은 모함과 박해뿐이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제 1독서를 통해 호소합니다. “주님, … 그들은 제 목숨을 노리며 구덩이를 파 놓았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 주고, 당신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리려 했던 일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는 악인들이 꺾어야 할 고통마저 자신이 꺾었지만, 결국 그 고통은 그의 영혼을 정화해줍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꺾으셔야 할 수난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리다툼이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밝히십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오셨다는 대속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시련마저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기만 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대속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바치는 희생과 봉사가 다른 이의 회개와 구원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된다면, 나의 삶은 큰 의미를 지니지 않을까?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여 이 고통을 당신께 바칩니다.”라고 말씀드려 보라. 실제로 힘이 생긴다. 그 힘은 우리가 그리스도교적 고통의 창조적 사랑이라고 부르는 데에서 흘러나온다. … 우리의 고통을 그분의 고난에 결합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이 창조적 본성에 참여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만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아주 인간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구속하신 하느님의 고난을 완성한다.

조너선 모리스, 『하느님의 약속』

실천 한 가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침묵을 생각하며 참아냅니다.

모든 고난은 우리가 마음만 열어 놓으면 예상 밖의 힘을 발휘해 우리를 치유한다. / 토머스 모어

3월

말씀 길라잡이

4일

예레미야 예언자는 헛된 환상이나 감언이설에 동조하지 않고, 하느님을 향해 묵묵히 길을 걷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지탱해주는 힘은 오늘 제1독서에서 보듯이 하느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 가문 해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

오늘 복음은 부자와 가난한 이의 비유입니다. 부자가 죽어서 고통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그가 남을 해치거나 도둑질한 것은 아닙니다. 부자의 죄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과 다른 이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무관심이었지요. 우리도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복음의 부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웃과 점점 거리를 두기 마련입니다. 이웃과의 사이에 스스로 구렁을 파는 것이지요. 이 구렁이 점점 크고 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웃은 물론이고, 하느님께도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가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고통이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손에 자신을 맡겨 드리는 사랑의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그리하여 고통은 신앙과 사랑이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십자가 위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성부와 일치하셨던 그리스도를 관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시선에 동참하는 법을 배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신앙의 빛, 56항』

실천 한 가지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집시다.

고통은 우리를 다시 아버지께 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 토니 던지

3월 5일

말씀 길라잡이

오늘 제1독서를 보면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요셉을 질투한 다른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놓습니다. 후에 이집트에서 재상이 된 요셉은 흉년이 들어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끝내 용서합니다.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창세 50,20).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던 형들을 용서함으로써,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서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가?’ 이 점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이를 통해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을 참으로 신뢰하고 배려하신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도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포도원 소작인처럼 하느님을 고의로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이에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을 어떻게 가꾸었는지 그 결실을 보고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의 끈으로 하느님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 끈이 끊어지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 하느님께서 다시 그 끈을 매어 주신대요. 끊겼던 끈을 다시 매면 끈 길이가 물론 짧아지겠지요. 그만큼 우리들은 하느님께 더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 내시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윤해영, 『희망의 속삭임』

실천 한 가지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을 바칩니다.

용서는 과거를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미래를 넓혀준다. / 폴 보즈

3월 6일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을 보면 재산을 분배받아 나간 작은아들이 타락한 생활 끝에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따뜻이 맞아들이며 잔치까지 베풀습니다. 이를 본 큰아들은 자신은 지금까지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다고 화를 냅니다.

작은아들은 집을 나가 방황 끝에 비로소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 깨달았습니다. 반면 큰아들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값어치를 모른 것입니다. 몸은 아버지 집에서 살았지만, 마음은 종살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얹어매었기 때문이지요.

아버지를 잘 섬기고 충실하게 일하던 큰아들도 결국 내면적으로는 작은아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단지, 하나는 집을 떠났다가 깨달음을 얻은 탕자이고, 다른 하나는 집 안에 있으면서도 깨우치지 못한 탕자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우리 역시 몸은 주님의 집인 성전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저 밖에 나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찌면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내적으로 방황하는 큰아들에게서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 남들과 비교를 하면 자신이 무엇이 모자라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질투와 불만만 쌓이지요. 그럴 때일수록 제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존재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감사히 받아들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으며, 무절제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안셀름 그룬, 『땀! 알맞게 살아가는 법』

실천 한 가지

나를 절망케 하는 것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님께 청합니다.

비교로 잃어버리는 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 비마라 타카르

3월
7일

말씀 길라잡이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파스카 축제를 지내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성전 관리들과 환전상들이 성전세와 희생 제물에 관한 규정을 악용하여 온갖 횡포를 부리자, 예수님께서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라고 외칩니다. 이는 올바른 생활과 참된 회개 없이, 성전을 그저 하느님의 은총을 사고파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어 예수님께서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당신의 몸을 성전이라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심으로써 실현되었습니다. 하느님과 우리와의 중재자가 되셨기에 진정한 성전이십니다.

우리는 성체를 모심으로써 예수님과 일치하게 되었지요. 따라서 우리 몸은 성령의 궁전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을 장엄하고 거룩하게 꾸미는 것은 우리의 몸이 진정한 성령의 궁전이 되도록 도와주기 위함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자신을 계발하고 정화해 나가야 합니다.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마다 이를 자신을 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요한 2,16). 교회가 하느님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할 때에 얼마나 불쌍사나워지는지요! 이 말씀은 아울러 하느님의 거처이신 우리의 영혼에 대한 위험들을 물리치도록 도움을 줍니다. 곧 우리의 이익만을 좇아 살며 우리 영혼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대하고 연대적인 사랑의 장소로 만들도록 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오늘처럼 하느님이 필요한 날은 없었다』

실천 한 가지

성체 조배 15분으로 주님을 조금 더 가까이 만나는 기회를 가집시다.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 1코린 3,17

3월

말씀 길라잡이

8일

오늘 제1독서를 보면, 아람군의 장군 나아만은 나병을 치유하려고 예언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자존심을 버리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자 나병이 치유되며 주님의 현존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가 겸손함을 찾았기에 치유될 수 있었지요. 오늘 복음도 같은 맥락입니다.

복음을 보면 예수님 고향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인을 제쳐놓고 이방인들에게 은총이 내렸다는 예수님 말씀에 분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유다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피해야 할 유혹 가운데 하나가 특권 의식입니다. 열정을 다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탐욕스러운 기도와 선행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스스로 죄 없다고 생각하거나 주님께 부끄럼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럴수록 철저한 겸손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권력 있는 자들을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높이시기 때문입니다(루카 1,52 참조). 늘 자신을 돌아보며 교만과 특권 의식을 포기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을 때 주님의 현존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 당신의 본성은 다함이 없으며 무한하오나 인간은 한낱 먼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당신께서는 인간에게 은총을 불어넣으시어, 그 은총으로 저희가 당신의 자녀가 되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살게 해 주십니다. 제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스콧 한,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

실천 한 가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 인사합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올바로 평가할 때 비로소 찾아온다. / 찰스 스펔전

3월 9일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 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지요. 일흔일곱 번이란 무한수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길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당신을 죽인 자들까지도 용서하신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불의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보다 더 큰 악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를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왜 불의를 받아들이라고 하십니까? 불의를 헤쳐나가 악을 극복해야만 더욱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악에 처해서도 용서와 사랑을 베풀 때만이 진정으로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서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진정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결코 단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남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 주님, 당신처럼 무한히 용서하기란 제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용서해야 할 때마다 부질없는 감정과 자존심을 고집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께서 도와주시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경춘, 『사순, 날마다 새로워지는 선물』

실천 한 가지

말다툼으로 멀어진 가족에게 사과하는 마음으로 정성이 담긴 선물을 준비해 보십시오.

용서는 이따금 하는 행위가 아니다. 용서는 영원히 실천해야 할 태도다. / 마틴 루터 킹

3월
10일

말씀 길라잡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하느님의 뜻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 중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커다란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생활에 응용해야 하지요.

율법 학자들은 이 커다란 원칙에 만족하지 못하고 갖가지 규율을 만들어 냅니다. 탈무드에는 안식일에 유대인이 해서는 안 될 39가지의 금지 조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붙이기 · 빵 굽기 · 망치질 · 바느질 · 공공장소에서의 운반 행위마저도 금지했던 것입니다. 가난하기에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안식일이 얼마나 부담되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 말씀은 형식적 · 기계적으로 계명을 지키려 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느님의 뜻을 먼저 찾으라는 뜻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바리사이들과 같은 위선과 형식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이 전통과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고, 결국 사람들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가장 본질적인 것, 곧 하느님 아버지와 내적인 만남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은 율법 그 자체에 얽매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이끄셨습니다.

한민택, 『내 삶에 열린 하늘』

실천 한 가지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에게 격려의 문자를 보냅니다.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3월 11일

말씀 길라잡이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이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지요. 그러자 일부 군중은 예수님께서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내었다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설득력 있는 논리로 그들의 허구를 타파하십니다. “만일 마귀 두목이 마귀를 내쫓는다면, 그것은 마귀의 세력이 망하는 길이다. … 하느님의 힘이 마귀를 내쫓은 것이다.” 악령은 점차 쫓겨나고 하느님 나라가 확산한다는 것을 암시하지요.

우리는 ‘악’과 ‘선’, ‘어둠’과 ‘빛’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선’과 ‘악’ 사이에는 중간이 없기 때문이지요. 어둠과 빛의 싸움에서 예수님 편을 들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악마의 편이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흠어 버리는 자다.”

오늘날 선과 악의 구별이 모호해질 때가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선으로 위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건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선과 악을 식별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선한 영과 악한 영의 행동 패턴이 있다. … 우리는 선한 영을 육성하고, 악한 영의 공허한 약속과 그것이 어떻게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인도하는지 볼 수 있게 우리 스스로 선과 악 모두의 표징을 읽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만 한다. 매일 양심 성찰을 하는 것은 성령의 패턴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리처드 레너드, 『도대체 하느님은』

실천 한 가지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진실한 것은 선하며 또한 아름답다. / 아메데오 첸치니

3월
12일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며,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십니다. 문제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 “나는 누구까지를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점입니다.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도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을 잘 알고 있었지요. 문제는 이웃의 범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당초 자기 민족 전체를 이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웃의 범위를 점점 축소합니다. 차츰 신분이 비슷한 사람끼리, 잘사는 사람끼리, 같은 학파끼리 이웃을 형성해 나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만 이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을 없애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웃의 범위를 무한히 확장하셨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 취급하던 이방인까지도, 죄인을 비롯한 그 어떤 처지에 놓인 사람까지도 이웃으로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이웃은 과연 누구인가? 나는 누구까지를 나의 이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 묵상했으면 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먹을 것이 없어 며칠 동안 굶고 있는 어느 가족을 찾아갔던 이야기를 해 주었다. 인도에 사는 힌두교인 가족이었다. 마더 테레사는 약간의 쌀을 가지고 가서 그 가족에게 주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그녀를 놀라게 했다. 가족의 어머니는 쌀을 반으로 나누어 이웃집 가족에게 가져다주는 것이었다. 그 이웃은 이슬람교인 가족이었다.

M. K. 폴, 『마더 테레사의 말씀과 일화』

실천 한 가지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을 바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발견하십시오. / 아돌포 케사다

3월 13일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에는 대조되는 바리사이와 세리가 등장합니다. 바리사이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옳다는 자만에 빠집니다. 그 오만함으로 이웃에 대해 마음이 굳어지고, 이웃을 멸시합니다. 이웃의 단점만 눈에 들어오기에 기도를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 저 세리보다도 낫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바리사이의 기도는 사실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한다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리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지은 죄를 나열하면 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 앞에서 자신이 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웃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도 않지요. 세리의 기도는 단순하기만 합니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복음의 세리는 주님을 절실히 찾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런 겸손한 자세로 신앙을 실천해나갈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에서 세리는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용서받았으니까요. 곧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겸손함을 바라는 이는 자신에게 하느님의 자비로운 눈길이 머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청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와 이해를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오늘처럼 하느님이 필요한 날은 없었다』

실천 한 가지

나를 돌아보면서 좋은 점과 고쳐야 할 점을 적어봅시다.

겸손은 하늘의 아름다움을 펼쳐주는 보이지 않는 뿌리이다. / 조지 무어

3월
14일

말씀 길라잡이

오늘 제1독서를 통해 주님께서는 바빌론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시며 빛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어둠에서 탈출하고자 찾아온 최고의회 의원 니코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빛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늘 선과 악의 다툼이 있습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로마 7,19). 그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는 비겁함, 이기심, 열등감, 이중성과 같은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기에 빛보다 어둠을 택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빛은 근본적인 치유를 해주지 않습니까?

빛을 향해 나아가려면 먼저 자신의 내부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양심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호소에 적극적으로 응답해나갈 때, 제2독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빛으로 충만하며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하느님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 살아갈 때 진리를 따라 살게 되고 선하고 옳게 행동할 수 있다. 양심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쉬네이데시스의 어원은 ‘함께 본다’는 뜻인 동사 쉬네이데나이다. 누구와 함께 본다는 것인가? 하느님과 함께 본다는 것이다. 양심이란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과 함께 보는 것이다. 그래서 양심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진리로 부르시는지 식별하는 ‘장소’이다.

송몽모,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실천 한 가지

보는 사람이 없어도 교통질서를 잘 지킵시다.

선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일이다. / 보부아르

3월
15일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을 보면 어느 왕실 관리가 자기 아들을 살려 달라고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자존심마저 버린 끈질긴 요청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가거라.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는 이 말 씀만 믿고 떠나갑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온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믿으며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는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면 그만 감사하는 마음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늘 많은 것을 받다 보니 때로는 은총에 대해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산과 강, 매일 먹는 음식, 기쁨을 주는 아기의 미소, 어린이들의 천진함, 낯모르는 사람이 베푸는 친절함 등 모두가 우리에게는 선물입니다. 시련과 고통마저도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려는 하느님의 선물이지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느님께 바랄 것을 바라고, 그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늘 기쁨에 넘치는 삶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서도 감사를 느끼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며 산다면 삶이 얼마나 신이 날까? 그저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이라도 얼굴을 맞댄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부드러워질까? 그렇게 모든 사람이 감사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한없이 감사의 영역이 넓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그것은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산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민, 『말은 시들지 않는다』

실천 한 가지

하느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며 가장 감사한 것 10가지를 적어봅시다.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 C.쿨리지

3월
16일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오랫동안 앓고 있던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먼저 그에게 묻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이 질문은 “네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낫기를 원하느냐?”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려면 주님께 마음을 다해 청해야 합니다. 뜨뜻 미지근해서는 안 되지요.

그가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했기에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일어나 네 들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이 말씀은 ‘너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노력하라.’는 뜻이지요. 물론 걷지 못하는 그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믿고, 일어서자 병이 나은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자신의 간절한 믿음이 결합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변화된다는 것은 죽음에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얼마나 큰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까? 하느님의 숨결 안에서 살려면 그동안 익숙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터전이나 습관을 버려야 하는 희생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걷지 못하던 병자처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일어나야만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다면 기억하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달팽이 두 마리를. 모든 생명체는 제 발로 걸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 달팽이가 느리고 작은 생명체라고 노아가 잡아 방주 안에 넣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느린 달팽이도 인내롭게 제 힘으로 기어서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래야 한다.

송봉모, 『순례자 아브라함 1』

실천 한 가지

오늘 하루 술, 담배, 커피값을 아껴 가난한 이웃을 위해 기부합니다.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는 좁은 도랑도 건널 수 없다. / 알랭

3월 17일

말씀 길라잡이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동일성을 주장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하느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서 하시는 일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뜻이지요. 이렇게 두 분이 일치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도 당신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느님께 온전히 순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십니다. 그런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지요. 당신 운명은 오직 하느님께 달려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위협이라도 진리를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온갖 유혹과 위협에도 진리만을 따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 복음에서처럼 심판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느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가?’ 우리가 꿈꾸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아니면 ‘부끄러움과 후회 속에서 정화의 과정을 거친 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연옥의 상태입니다. 또는, ‘하느님을 끝내 거부하며 영원한 절망과 어둠 속에 머무는가?’ 지옥의 상태입니다.

순교자들은 우리에게 ‘예’라고 대답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예’는 주님을 위한 사랑에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 없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또한 ‘아니요’라고 답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며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들지라도 유혹과 타협과 불의에 ‘아니요’라고 응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산입니다. 언제나 수용되어야 할 유산입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구엔 반 투안,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며』

실천 한 가지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생각하고, 주님께 그것을 지고 갈 힘을 청하며 기도합니다.

진리는 햇빛과 같다. 어떤 손으로도 그것을 더럽힐 수 없다. / J. 밀턴

3월
18일

말씀 길라잡이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유다인들에게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밝히십니다. 이를 위해 당신을 증언할 사람으로 세례자 요한을 듭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뵈고는 이렇게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요한 1,29).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말씀과 행동이 바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주장하십니다. 이는 하느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따라서 하느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느님 말씀을 늘 대하면서도 성경에 내포된 하느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성경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랑의 실천에 인색한 경직된 신앙을 지녔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안타까워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하느님께서서는 행동하는 분이시기에, 하느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안에 담긴 구원의 메시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것과 말씀을 아는 것은 다르다. ...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지낸 흐루시초프는 초등학교 때 복음서를 외우다시피 했다고 한다. 웬만한 그리스도인보다 월등하게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말씀에 담긴 진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 말씀 안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기에 훗날 공산당원이 되고 공산당 서기장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을 철저히 박해했다.

송봉모, 『생명이 빛이 가슴 가득히』

실천 한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진심으로 격려해 줍시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 모피어스

3월 19일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을 보면 요셉 성인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약혼자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자 그저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지요.

이런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주님의 계획을 전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 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요셉은 전적으로 순명합니다.

요셉은 말을 하기보다 듣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보다는 하느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의 전형이지요. 그러기에 하느님 말씀이 세상에 실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요셉은 가장 겸손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늘 예수님과 성모님의 뒤에서 말없이 헌신하였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니다. 성모님의 남편으로서 동정을 지키며 얼마나 힘든 길을 걸었겠습니까?

그러기에 요셉은 믿는 이의 가장 뛰어난 표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때로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을 많이 대하게 됩니다. 이를 신앙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성 요셉, 앞서고 싶을 때면 당신을 생각하며 겸손을 배웁니다. 뒤처진다 싶을 때도 당신을 생각하며 용기를 얻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삶, 티끌이나마 따르고 싶어 당신의 이름 높이 부릅니다. 당신의 모습 깊이 새겨 봅니다.

윤해영, 『연민, 사랑으로 가는 길』

실천 한 가지

성 요셉의 겸손과 믿음을 청하며 ‘성 요셉 성월 기도’를 바칩시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다. / 토마스 아퀴나스

3월 20일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을 보면 분위기가 점차 무거워집니다. 수석 사제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 경비병을 시켜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예언자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율법도 모르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몰아잡니다. 누가 권력 앞에서 예수님의 입장을 옹호하겠습니까?

그런데 니코데모가 나섭니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니코데모는 비록 소극적인 자세로 예수님을 변호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당시 그 살벌한 분위기에서는 대단한 행동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여 니코데모는 빛의 길을 걷게 되며 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드립니다(요한 19,38-42 참조).

여론 조작이나 집단적 군중 심리로 인해 진리가 왜곡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틀리게 이야기하더라도 어느 하나가 올바르게 말을 한다면,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수라도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면, 오늘 니코데모처럼 다른 이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핵심이며 지성소이다. 거기에서 인간은 홀로 하느님과 함께 있고 그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다. 양심에 충실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결합되어 진리를 추구하고 개인 생활과 사회관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도덕 문제들을 진리 안에서 해결하게 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목헌장, 16항』

실천 한 가지

서먹서먹했던 이웃이나 직장 동료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봅시다.

불의하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느님을 생각하는 양심 때문에 그 괴로움을 참아내면 그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 1베드 2,19

3월 21일

말씀 길라잡이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만 온다는 뜻입니다. 새싹이 나오려면 먼저 씨앗이 죽어야 합니다. 씨앗이 죽는다고 해서 씨앗의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씨앗과 새싹은 별개의 것이 아니기에, 씨앗의 형태가 새싹의 형태로 변화되는 것뿐입니다. 만일 씨앗이 말라 뒤틀어졌다면 싹이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고 건실한 싹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평소 어떠한 준비가 필요합니까? 내 안에 깃든 악의 경향, 부정적인 마음, 어둠과 죽음의 힘마저 죽여야 합니다. 그럴 때 생명의 힘, 선한 마음이 충만해질 것이 아닙니까? 개인적인 욕망을 묻을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 쓰실 만한 재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각오하고 전력을 다해 일할 때만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모두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은 당신 제자인 우리가 당신처럼 십자가를 지고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바라신다. ... 우리가 밀알이 되기를 거부하거나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자아만 남아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면 가장 완전한 예수님의 인격을 옷 입게 될 것이다. 탐욕이 아니라 절제가, 이기심이 아니라 관대함이, 비열함이 아니라 고결함이, 잔인함이 아니라 온유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송봉모, 『생명의 빛이 가슴 가득히』

실천 한 가지

불평할 일이 생길 때마다 화살 기도를 바칩시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다. / 도스토예프스키

3월 22일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에서는 어떤 여인이 간음죄를 범했다고 유다 지도자들에 의해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주변은 침묵에 빠집니다. 군중은 그 침묵 속에서 점차 자신의 본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혹시 마음속으로나마 욕망을 품지는 않았는지? 율법에 따르면 다른 여자를 마음으로라도 생각하면 바로 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군중은 하나하나 자리를 뜨고 갑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발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성찰하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의 침묵이 그들로서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덮고 있던 그 어떤 껍질이 벗겨지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인에게는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고 당부하십니다. 오늘 돌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반면 나는 자존심 때문에 돌을 내려놓지 못한 적은 없는지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인디언들은 물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형 문자를 사용했는데요. 어린이의 마음은 세모꼴, 어른의 마음은 동그라미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세모꼴의 양심이 콧코 찔러서 마음을 깨우쳐 주었는데, 어른이 되는 동안 세모꼴의 모서리가 점점 닳아져서 우리의 양심도 무디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군요. 지금 내 마음의 양심은 어떤 모양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윤해영, 『희망의 속삭임』

실천 한 가지

단 5분이라도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며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 셰익스피어

3월 23일

말씀 길라잡이

오늘 제1독서는 불 뱀에 물렸어도 구리 뱀을 쳐다본 사람은 죽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불 뱀을 만나고 있지요. 문제는 불 뱀인지 모르고 불 뱀의 유혹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불 뱀과 구리 뱀을 식별하도록 늘 하느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떠나신다면서, 떠나신 후에는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결코 찾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어떤 기회가 왔다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이어 우리의 생명과 시간이 제한되었다는 점과 우리 삶에서 기회가 있듯이 심판 역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명을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실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이어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 죄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죄는 사람을 하느님으로부터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처음 죄를 범했을 때 본능적으로 숨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과 길을 함께 걷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구엔 반 추기경은 옥살이를 하면서도 풀려날 날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이렇게 다짐하였습니다. “현재의 모든 순간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서 살리라.” 또한, 다음과 같이 결심하였습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기회들을 붙들리라. 일상의 행동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수행하리라.”

프란치스코 교황,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17항』

실천 한 가지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록 하느님의 은총을 청합시다.

참된 영성은 지금 여기에서 신과 하나 됨을 실현하는 것이다./ 리처드 로어

3월 24일

말씀 길라잡이

오늘 제1독서를 보면 다니엘 예언자의 세 친구는 금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불가마에 들어가는 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신의 아들’ 같은 넷째 사람이 뜨거운 불 속을 거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들은 죽기보다 힘든 고통을 신앙으로 이겨냄으로써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적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남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온갖 악의 유흥에서 벗어나 모든 불안과 걱정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또한,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사실 자신에게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자신이 아닙니까? 자신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남들의 평가나 비판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눈만을 바라볼 수 있기에 그만큼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진 바에 대한 애착’을 넘어서서 ‘자신에 대한 애착’까지도 버려야 하는 일입니다. 본성에 단단히 뿌리박혀있는 이기심, 자존심, 자애심 등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내 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움켜진 손을 펼치면 펼칠수록 주님은 그만큼 당신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송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실천 한 가지

예수님을 따르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결점 한 가지를 찾아 고치기로 결심합니다.

자유에 접근하는 단 하나의 길은 믿음, 희망,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 자크 필립

3월
25일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를 구원의 도구로 택하신 이유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인간이 생각하는 세계와 하느님의 세계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계는 철저하게 힘 있는 자 중심이며,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지요. 하느님의 세계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까지 받아들이는 신앙의 세계입니다. 이를 위해 하느님께서서는 아기를 잉태할 능력이 없는 마리아를 통해 생명을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에 의해서이지요.

인간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지만, 주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우리는 유보다는 무를 바라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이들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장차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콜카타에서만 하루에 만 명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그 일을 맡은 수녀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녀님,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9시쯤에 빵을 실은 트럭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가난한 학생들에게 매일 빵과 우유를 배급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날 학교가 전부 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M. K. 폴, 『마더 데레사의 말씀과 일화』

실천 한 가지

오늘 하루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기쁘게 생활합니다.

믿음은 희망이 없어 보였던 것을 우리의 손 안에 놓는다. / 성 요한 클리마쿠스

3월 26일

말씀 길라잡이

오늘 제1독서 끝부분에서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가난한 이들의 목숨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셨다.” 하느님에게 붙들려 일생 고독 속에서 온갖 고통과 모독을 당한 예레미야입니다. 이런 예레미야를 참된 예언자로 이끈 힘은 하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 합니다. 예수님께 서 사람인데도 하느님으로 자처하며 하느님을 모독한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시며 당신 신원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눈에 보여야 믿겠다는 식이지요.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물 중에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사랑이나 우정, 양심 같은 마음을 보거나 만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으로써 확인을 하려 하지요. 하느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식으로 조건을 걸지 않습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을 뵈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떠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지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각 개인의 삶 안에서 당신께서 바라시는 방식으로 신비롭게 현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추론보다는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우리는 모든 인간 삶 안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42항』

실천 한 가지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을 바칩니다.

몸으로 공기를 느끼는 것처럼 마음으로 하느님을 깨닫는다. / 조셉 주베르

3월 27일

말씀 길라잡이

오늘 제1독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리를 배반하고 이웃과 갈라져 서로 싸우며 멸망의 길을 걸었어도,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을 끝내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보면 유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그들은 일반 민중에게까지 엄격한 율법 준수를 요구하였지요. 그런데 생활이 어려운 이들은 그 많은 계명을 세세하게 지킬 수 없었기에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들을 죄의식에서 해방하시며 하느님을 믿는 것을 매우 쉽게 만드셨습니다. 하느님께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을 하느님께서서 함께하신다는 희망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너무나 위험해 보였습니다. 불결한 사람들, 죄인들, 이방인들과도 즐겨 어울리며 안식일 계명마저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두었다가는 기존 질서를 다 파괴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느님마저 모독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시각에서 모든 현상을 바라보기 위함이지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생각한다면 그 누구라도 구원의 길로 이끌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한 중재가 필수적이다. 이 시선은 부모의 것일 수도 있고 친구나 영적 아버지의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시선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순수하고 진실하며, 가장 부드럽고 사랑스러우며, 희망으로 가득 찬 시선이기 때문이다.

자크 필립, 『내면의 자유』

실천 한 가지

열린 마음으로 가족, 친구, 이웃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수많은 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영혼의 눈'이다. 진실은 영혼의 눈에만 보인다. / 플라톤

십자가의 위안을 구하는 기도

- 성 알폰소 로드리게스

예수님, 내 영혼의 사랑, 내 마음의 중심!
나의 하느님, 당신께서 나 때문에 그토록 고통받으실 때,
당신의 사랑에 대한 고통과 시련을 견디어 내기를
왜 나는 더 갈망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모든 시련이 오는 그대로
예수님을 위해 고통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구세주를 따르고,
십자가상에서 나의 위로자와 함께
나의 위안을 발견하기 위한 나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걸으며,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그리고 그분을 위해 견디어 내기 위한
나의 기쁨이며,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것은 나의 보물입니다.

기쁨을 안고 있는 사순 시기

사순 시기의 유래와 그 말뜻

사순 시기의 유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단지 2세기 이래로 하루 또는 2~3일 동안 단식하면서 부활을 준비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것과, 시간이 흐르면서 각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준비 기간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4세기 말, 로마 교회는 부활 전 40일을 부활 준비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40일 동안의 기간임을 뜻하는 ‘사순 시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4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사막에서 40년 동안 머무르며 하느님 백성으로 새로이 태어난 사실, 엘리야가 호렙 산에서 40일간 단식과 기도를 하며 하느님을 만날 준비를 하였다는 것, 더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이 세례 후 공생황을 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간 단식과 기도로 사시던 중 유혹을 받으신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40이란 숫자는 하느님과 만나기 전, 또는 하느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 거쳐야 할 정화와 준비와 기간을 상징적으로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사순 시기의 의의

첫째, 사순 시기는 부활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초대 교회는 단식과 참회 및 기도로써 부활절을 준비하였고, 이러한 정신이 사순 시기의 전례 안에 많이 배어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관습에 의하면, 중죄를 지은 이가 자신의 죄를 주교와 공동체 앞에 공적으로 고하면 주교는 참회 기간을 정해 주었습니다. 참회자는 ‘재의 수요일’에 참회복을 정식으로 입고 공적 참회에 들어가는

데, 그 사람에게는 영성체가 금지되었습니다. 성 목요일 오전에 이러한 참회자들과 교회 공동체간의 화해 예식이 이루어지며, 이로써 참회자들은 정식으로 부활 축제에 참여하는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공적 참회와 공적 화해가 이 사순 시기에 이루어짐으로써 사순 시기가 단식과 기도로 파스카를 준비하는 시기라는 점보다 죄의 용서를 위한 고행과 보속의 시기라는 점이 더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갖가지 형태의 고행 방식이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공적 참회와 공적 화해 예식이 없어진 지금, 사순 시기의 본래 뜻을 다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아주 이른 시기, 적어도 5~6세기부터 사순 시기는 파스카에 이루어질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여겨졌습니다. 가해 ‘사순 제3주일’에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을 주는 물임을(요한 4,5-42), ‘사순 제4주일’에는 태생 소경의 치유를 통하여 광명을 주시는 분으로 드러나시고(요한 9,1-41), ‘사순 제5주일’에는 라자로의 부활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당신을 드러냅니다(요한 11,1-45). 이같은 말씀 전례를 통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생명수를 마시고 빛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 줌으로써 세례의 본뜻을 새기게 합니다. 이러한 구성은 현재 사순 시기 ‘가해’에 그대로 나타나 있으며, 이 때문에 교회는 파스카 밤에 세례가 없다 하더라도 신자들이 자신들의 세례를 상기하도록 ‘나해’와 ‘다해’에도 ‘가해’의 말씀 전례를 따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순 시기는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고행 자체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 즉 정화와 성화(聖化)의 시기라는 데에 있습니다. 이 점에서 사순 시기는, 세례 준비와 자신의 세례 때를 상기해 봄으로써 진지한 자세로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뉘우치는 가운데 그에 합당한 보속 행위를 통하여 주님의 파스카 신비, 주님의 수난과 죽음, 부활에 참여하도록 준비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출처: 김인영, 『제대와 감실의 싸움』

3월 28일

말씀 길라잡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열광하던 군중이 얼마 후 태도를 바꾸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그 침묵은 너무나 큰 힘을 갖습니다. 그 안에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께 대한 순명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 다 녹아있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때로 침묵 속에 잠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라고 부르짖으시고는 숨을 거두십니다. 하느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어야 산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로써 스스로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포기한 사람마저 모두 구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땅끝까지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을 가져오셨는지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희망인지 절망인지, 사랑인지 미움인지, 나아가 생명을 주시는지 아니면 죽음을 주시는지….

구세주의 수난은 인류에게 있어 구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자 했습니다. 그분이 잠시 동안 현재의 우리처럼 되려고 하셨을 때, 이는 우리가 그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지내고 있는 천상 신비의 은총이고 파스카의 선물이며 일 년 동안 갈망하던 축제이고 재생의 시작입니다.

옛 교부의 파스카 강론에서, 『성무일도 제2권』

실천 한 가지

작은 선행 한 가지 이상을 실천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 톨스토이

3월
29일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라자로의 누이인 마리아의 태도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값진 순 나르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렸기 때문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의 말대로 그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생각은 유다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계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어 가장 값진 것을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 바친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로 보아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드릴 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가장 좋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며 최고의 예우를 다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표현 방법이 다릅니다.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그분을 시험하는 것으로 표현했지요. 그 결과, 예수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향유를 부어드림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최대한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비싼 단지를 깨어 순 나르드 향유를 예수께 다 부어드린다. 그래서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사랑은 본성상 값이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는다.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내어준다. 마리아는 순 나르드 향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비싼 것인지에는 관심이 없다.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께 대한 지극한 정성과 조건 없는 사랑, 헌신을 보여준다.

송봉모, 『생명의 빛이 가슴 가득히』

실천 한 가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담아 먼저 웃으며 인사합니다.

가장 귀중한 사랑의 가치는 희생과 헌신이다. / 그라시안

3월
30일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배신을 아시고는 죽음을 받아들이십니다. 이후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그분을 모른다고 잡아떼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날 두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먼저 유다의 배반은 철저하게 계획적이었습니다. 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본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늘 옳았지만, 단지 그의 뜻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평생 뉘우치며 살고 다른 활동으로 보상한 것이지요. 반면 유다는 절망한 나머지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가 말이 앞서고 실천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은 물론 당신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 역시 아셨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서는 현재의 베드로보다는, 장래에 변화될 베드로를 미리 보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가족이나 이웃의 현재 모습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점보다 그가 지닌 사랑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앞날의 가능성을 보며 그가 변화되도록 꾸준한 기도와 함께 사랑을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눈과 머리면 족하다. 하지만 지나간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오히려 육신의 눈은 감아야 한다. 더군다나 동기나 지향 그리고 열정같이 상대방의 마음 안에 담겨 있던 것들은 역시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 사람과 세상을 보고 그 감동들을 담아두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빈자리가 필요하다.

최강, 『나는 넘버 쓰리가 두렵다』

실천 한 가지

가족과 이웃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의 장점을 칭찬해 줍시다.

사랑을 더럽히는 온갖 것들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성덕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3월 31일

말씀 길라잡이

오늘 복음을 보면 유다가 수석 사제들에게 은돈 서른 닢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유다는 왜 배신하였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과도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기에, 예수님을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하면 예수님께서 더욱 강력한 방법을 쓰시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지요.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이들이 많기만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아무런 말 없이 협력한 이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시지요. 죽음을 앞둔 예수님에게 파스카 축제를 지내시도록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가 방을 제공함으로써 예수님께서서는 최후 만찬을 거행하시며 성체성사를 제정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제 일보다 하느님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기 때문입니다.

중동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 “매일 아침, 나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해 서서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정면을 향해 서서 바람을 맞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반대에 맞서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씨 뿌리는 사람의 진정한 카리스마다. ...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 계속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조앤 치티스터,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실천 한 가지

나로 인해 마음을 다친 이가 있다면 먼저 용서를 청하십시오.

용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용기는 신의와 함께 가장 값진 능력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4월 1일

말씀 길라잡이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발을 씻어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지 않으시면 베드로는 구원의 몫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냄새나는 발을 씻어 주신다는 것은 온갖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고 명하십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힘겹게 살아가느라 많은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법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법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도, 용서를 청하는 마음도, 마음의 여유도 잃어버렸지요. 서로 씻어 주어야 할 발입니다. 서로 씻어 주는 과정을 거쳐 우리는 긴장과 과시하려는 욕망, 대우받으려는 마음 등을 벗어버리며 하느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좋은 몫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땅이 축축해야 온갖 식물들이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에도 물기가 있어야 상대방을 품어 안을 수 있겠지요? 메마른 마음 안에는 아마 아무도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설령 들어갔다 하더라도 숨을 헐떡이며 금방 뛰쳐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의 과제는 ‘마음을 축축하게’.

윤해영, 『희망의 속삭임』

실천 한 가지

가능한 시간에 수난 감실 앞에서 성체 조배를 합시다.

사랑은 약함 속에서도 자기를 일으켜 세우고 서로를 화해시키며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모든 힘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4월

말씀 길라잡이

2일

“목마르다.” 이 한마디 말씀을 남기시며 예수님께서서는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끈 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경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깁니다. 우리 주변에도 빌라도처럼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일신상의 안일함을 피하기 위해 이를 외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처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급기야 자신들의 왕은 로마 황제뿐이라고 소리치지요. 오늘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선과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군중은 유다 지도자들의 선동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빠를 선택하고 맙니다. 그들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면서도, 용기가 없어 그대로 주저앉아버린 것입니다. 일부 무리는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보고는 열광했고, 그 예수님을 이용하여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려 했지요. 그들이 바란 메시아는 세속적인 힘이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오늘날도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미르나의 주교 폴리카르포는 로마에 끌려갔을 때, 배교하고 지금이라도 황제를 예배하면 살려주겠다고 하자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태어나서 이 나이가 되기까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겨왔는데 …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모독하겠는가?” 그는 화형에 처해지기 전,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하느님! … 이제 당신께서 저를 이날 이 시간에 적합한 자로 여기고 받아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송봉모, 『예수, 우리의 발걸음을 아바 하느님께로』

실천 한 가지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을 공동체와 함께 바칩시다.

모든 덕 가운데서 가장 강하고 고결하고 자랑스러운 것은 진정한 용기다. / 몽테뉴

4월 3일

말씀 길라잡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밝혀주고, 그분의 평화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제자들도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면 몇몇 여인들이 향료를 들고 무덤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빈 무덤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빛이 어둠을, 선이 악을 이긴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가장 큰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우리도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가득 품어야 합니다. 시련과 절망을 극복하고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리라는 희망입니다. 억눌린 이들이 자유를 찾고, 굶주리는 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희망! 푸른 하늘과 맑은 강을 보는 희망입니다. 희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나가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으로 희망을 전하며 이 어두운 사회를 환히 밝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예수님의 부활’과 ‘자신의 부활’ 사이에 놓인 삶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하여 ‘자신의 부활’로 마무리되는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안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겠으며 어떤 유혹에 흔들리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로마 8,35). ‘예수님의 부활’을 가슴 가득 안고 ‘자신의 부활’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송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실천 한 가지

기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부활 성야 미사에 참석합니다.

희망은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하느님만큼 광대해지는 것이다. / 그레고리 보일

4월

말씀 길라잡이

4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힘을 새롭게 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평화와 생명을 얻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성경 말씀을 글자 그대로 믿는 것보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느덧 봄이 왔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는 우울해도 눈앞에 보이는 자연은 생명이 넘칩니다. 어떻게 생명이 넘칠 수 있습니까? 나무는 봄, 여름, 가을의 아름답던 추억을 다 떨어뜨리고 완전히 마른 가지가 되어 겨울을 맞이합니다. 이런 상실의 아픔이 바로 죽음의 고통이 아닙니까?

부활은 겨울을 맞는 나무처럼 소중했던 모든 것을 모두 포기하는 결단을 전제로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이기적인 욕심마저 비우는 끊임없는 탈출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평화와 생명이 넘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변해야 합니다. 또한, 부활을 체험했다면 이웃에게 주님을 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과 나의 부활 체험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거울에 반사되듯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서 빛나고, 그 빛이 퍼질 때 빛이 우리에게 내려와 우리 또한 그 빛에 참여하며, 다른 이들에게 그 빛을 반사하게 합니다. 그것은 파스카 전례 때 부활초의 빛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초들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마치 초 하나가 다른 초에서 그 불을 옮겨 받듯이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통하여 전달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신앙의 빛, 37항』

실천 한 가지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나눕시다.

의인에게는 빛이, 마음 바른 이들에게는 기쁨이 뿌려진다. / 시편 97,11

- 4쪽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다니엘 로워리 지음, 이권 옮김, 가톨릭출판사, 2003, 89쪽
- 5쪽 프란치스코, 회칙 『신앙의 빛』(*Lumen Fidei*), 2013.6.29., 56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3(제1판), 81쪽
- 6쪽 『사순, 날마다 새로워지는 선물』 유경춘 지음, 가톨릭출판사, 2018, 14쪽
- 7쪽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송헌 지음, 가톨릭출판사, 2008, 233쪽
- 8쪽 『광야에 선 인간』 송봉모 지음, 바오로딸, 1998, 30쪽
- 9쪽 『내 삶에 열린 하늘』 한민택 지음, 생활성서사, 2020, 82쪽
- 10쪽 『주님의 기도』 안셀름 그룬 지음, 이종한 옮김, 분도출판사, 2015, 111쪽
- 11쪽 베네딕도 16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Deus Caritas Est*) 38항, 2005.12.2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6(제1판), 71~72쪽
- 12쪽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송헌 지음, 가톨릭출판사, 2008, 243쪽
- 13쪽 『내면의 자유』 자크 필립 지음, 김은수 옮김, 성바오로, 2010, 104쪽
- 14쪽 『마더 데레사의 말씀과 일화』 M. K. 폴 지음, 장말희 옮김, 성바오로, 2008, 94쪽
- 15쪽 『하느님과의 숨바꼭질』 한민택 지음, 생활성서사, 2017, 125쪽
- 16쪽 『나는 넘버 쓰리가 두렵다』 최강 지음, 가톨릭출판사, 2007, 151쪽
- 17쪽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조앤 치티스터 지음, 박정애 옮김, 가톨릭출판사, 2017, 55쪽
- 18쪽 『하느님의 약속』 조너선 모리스 지음, 이창훈 옮김, 가톨릭출판사, 2018, 264쪽
- 19쪽 『마더 데레사의 말씀과 일화』 M. K. 폴 지음, 장말희 옮김, 성바오로, 2008, 101쪽
- 20쪽 『희망의 속삭임』 윤해영 지음, 가톨릭출판사, 2010, 14쪽
- 21쪽 『때! 알맞게 살아가는 법』 안셀름 그룬 지음, 최용호 옮김, 가톨릭출판사, 2017, 147~152쪽
- 22쪽 『오늘처럼 하느님이 필요한 날은 없었다』 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진슬기 옮김, 가톨릭출판사, 2019, 267쪽
- 23쪽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 스콧 한 지음, 천강우 옮김, 바오로딸, 2020, 43쪽
- 24쪽 『사순, 날마다 새로워지는 선물』 유경춘 지음, 가톨릭출판사, 2018, 104쪽
- 25쪽 『내 삶에 열린 하늘』 한민택 지음, 생활성서사, 2020, 91쪽
- 26쪽 『도대체 하느님은』 리처드 레너드 지음, 맹영선 옮김, 성바오로, 2017, 101쪽
- 27쪽 『마더 데레사의 말씀과 일화』 M. K. 폴 지음, 장말희 옮김, 성바오로, 2008, 86쪽
- 28쪽 『오늘처럼 하느님이 필요한 날은 없었다』 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진슬기 옮김, 가톨릭출판사, 2019, 22쪽

- 29쪽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송봉모 지음, 바오로딸, 2019, 131쪽
- 30쪽 『말은 시들지 않는다』 이제민 지음, 생활성서사, 2008, 104쪽
- 31쪽 『순례자 아브라함 1』 송봉모 지음, 바오로딸, 2008, 51쪽
- 32쪽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며』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구엔 반 투 지음, 한림대 가톨릭교수협의회 옮김, 바오로딸, 2007, 146쪽
- 33쪽 『생명의 빛이 가슴 가득히』 송봉모 지음, 바오로딸, 2014, 43~44쪽
- 34쪽 『연민, 사랑으로 사는 길』 윤해영 지음, 가톨릭출판사, 2018, 180쪽
- 35쪽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1965.12.7., 16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글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제3판), 413쪽
- 36쪽 『생명의 빛이 가슴 가득히』 송봉모 지음, 바오로딸, 2014, 356쪽
- 37쪽 『희망의 속삭임』 윤해영 지음, 가톨릭출판사, 2010, 78쪽
- 38쪽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Gaudete et Exsultate*), 2018.3.19., 17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8(제1판), 20쪽
- 39쪽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송현 지음, 가톨릭출판사, 2008, 151쪽
- 40쪽 『마더 데레사의 말씀과 일화』 M. K. 폴 지음, 장말희 옮김, 성바오로, 2008, 122쪽
- 41쪽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Gaudete et Exsultate*), 2018.3.19., 42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8(제1판), 34쪽
- 42쪽 『내면의 자유』 자크 필립 지음, 김은수 옮김, 성바오로, 2010, 49쪽
- 44~45쪽 『제대와 감실의 싸움』 김인영 신부 지음, 분도출판사, 1996, 39~41쪽
- 46쪽 성무일도 II,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제1판 14쇄), 546쪽
- 47쪽 『생명의 빛이 가슴 가득히』 송봉모 지음, 바오로딸, 2014, 323쪽
- 48쪽 『나는 넘버 쓰리가 두렵다』 최강 지음, 가톨릭출판사, 2007, 186쪽
- 49쪽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조앤 치티스터 지음, 박정애 옮김, 가톨릭출판사, 2017, 98쪽
- 50쪽 『희망의 속삭임』 윤해영 지음, 가톨릭출판사, 2010, 48쪽
- 51쪽 『예수, 우리의 발걸음을 아빠 하느님께로』 송봉모 지음, 바오로딸, 2018, 288~289쪽
- 52쪽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송현 지음, 가톨릭출판사, 2008, 65쪽
- 53쪽 프란치스코, 회칙 『신앙의 빛』(*Lumen Fidei*), 2013.6.29., 37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3(제1판), 57쪽

돌아섬

2021년 사순 시기 묵상집

발 행 일	2021년 1월 1일
발 행 인	김준철 신부
편 집 인	한지영 수녀
편 집	임미숙, 문혜영, 전도영
발 행 처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주 소	04918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74(중곡동)
전 화	02) 2268-7103
팩 스	02) 2268-7104
E-mail	pmsk@pmsk.net
홈페이지	www.pmsk.net
페이스북	www.facebook.com/pmsk1004

교황청 전교기구는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소속으로,
선교지역 신생 교회들의 사목 활동과 사제 양성을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이사 6,8)



해외 선교사제가 봉헌할 미사 예물을 접수합니다.

☎ 02.460.7611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PONTIFICAL MISSION SOCIETIES IN KOREA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PONTIFICAL MISSION SOCIETIES IN KOREA